

국제인증 기업들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공급체인 대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Study on the causal relation of Partnerships Factors, Supply Chain Respons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Certification Companies

김창봉(Kim, Chang-Bong)* · 권승하(Kwon, Seung-Ha)**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기업의 사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16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를 선행변수로, 공급체인 대응성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사업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급체인 파트너링 요인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 요인은 공급체인 대응성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급체인의 대응성 요인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체인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는 업종 분야별, 기업규모별로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글로벌 파트너십,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 공급체인 대응성, 사업성과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relationships among Partnerships factors, supply chain respons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precedent studies, Our study analysed 167cases from Korean companies which adopted a international certification and then develop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model test, this empirical study found that supply chain partnering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organization linking and resource sharing affects positively on Business performance mediate supply chain responsiveness. For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for discovering effective practice factors of extended partnerships.

Key Words : Partnership, Supply Chain Partnering, Organization linking, resource sharing, supply chain responsiveness, Business Performance.

*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경영학박사, kimchangbong@hanmail.net), 제1저자.

* First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Department of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시간강사(경영학박사, ksh4015@hanmail.net), 교신저자.

** Corresponding author, Time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I. 서론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제품의 포지셔닝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충성도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 등의 외부압력이나 경쟁 기업들이 국제인증 획득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국제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제인증의 실행은 기업간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체인의 구성원 부분적인 사안들을 최적화하는 것보다 전체 공급체인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급체인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급체인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SCM)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공급체인 전체를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글로벌 파트너십 요인으로 기업 경쟁우위의 일부로서 기업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각 기업과 국가들은 글로벌 지역의 제품 규제 및 국제 특허, 상호국제인증이 공급체인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제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공급체인 파트너링은 기업이 공급자 또는 고객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기업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다. 조직적인 연계는 기업들이 기업 내부의 부처간에 연계와 기업 외부적으로 공식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자원공유는 내부적인 연계를 통해서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업들은 공급체인의 대응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급체인 대응성은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고객 만족 활동을 통하여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인증에 대한 연구는 기업이 품질향상, 환경적인 이슈, 시장의 압력과 환경 규제에 의해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유용성, 조직적인 향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Marin and Ruiz-Olalla, 2011; Caro and Garcia, 2009; Padma et al., 2008; Zaramdini, 2007). 국제인증이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파트너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를 통하여 공급체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세부 요인과 공급체인의 대응성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세부 요인인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를 선행변수로, 공급체인의 대응성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기업의 사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공급체인망의 실행 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인증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제품의 포지셔닝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들에게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이후에 재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Marin and Ruiz-Olalla, 2011; Zaramdini, 2007; Escanciano et al., 2001).

기업들은 고객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제인증을 실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 등의 외부압력이나 경쟁 기업들이 국제인증에 노력하기 때문이다. 국제인증을 통하여 내·외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내부성과는 기업 내부 기능과 관련된 공급체인 프로세스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외부성과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성과이다(Singels et al., 2001; Singh et al., 2001). 또한 기업들은 환경적인 이슈의 대두로 국제인증을 통하여 기업 내부의 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을 실행하고 있다(Kim et al., 2012; 김창봉·정순남, 2011).

국제인증을 실행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 단계이고 공급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기업들이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Zaramdini, 2007; Escanciano et al., 2001). 따라서 국제인증의 실행을 통하여 기업간 효율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공급체인의 글로벌 파트너십

기업의 공급자와 구매자들은 공급체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 공급체인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확대하면 경쟁 기업과의 경쟁우위 원천을 확인하고 비용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적인 활동을 분석하는 가치체인(value chain)의 개념이다. 이런 가치체인은 제품과 서비스에 추가되는 가치의 내부적 프로세스에 집중되고, 공급체인의 상류와 하류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공급체인 전체를 내부적 프로세스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공급체인의 구성원을 따로따로 최적화하는 것보다 한 기업처럼 전체 공급체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급체인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특성인 공급체인관리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공급체인관리는 기업 내부와 기업 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한 기업 시스템을 공유하여 기업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체인 전체를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글로벌 파트너십 요인으로 기업 경쟁우위의 일부로서 기업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Beth et al., 2003; Fynes and Voss, 2002; Lambert, 2001).

공급체인관리의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는 쌍방향 정보공유, 공급체인 문제 해결에 참여, 기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의 역량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공급체인관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공급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확장을 추구하는 공급체인 파트너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ajagopal et al., 2009). 따라서 공급체인의 확장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글로벌 파트너십은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공급체인 파트너링은 기업이 공급자 또는 고객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기업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다. 공급체인의 파트너링이 향상되면 파트너들 간에 장기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공급체인에 팀워크를 조성하여 공급체인 구성원들 모두에게 효율성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체인의 파트너링을 통하여 기업들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Wong, 2002; Abdul Aziz, 2001; Boddy et al., 2000).

내부적으로 통합된 기업은 기업 내부에서 파생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급자 통합의 경쟁우위를 시도하고, 시장 변화를 활용하는 것의 수단으로서 기업의 품질, 비용, 배송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하

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 내부의 부처 간에 연계와 기업 외 부적으로 공식적인 연계를 구축하면 신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에 참가하여 작업하기 위한 흥미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서로 win-win 하고 공동의 개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기업의 업무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조직적인 연계는 중요한 요인이다(Rajagopal et al., 2009; Sezen, 2008; De Ruyter et al., 2001; Whipple and Frankel, 2000).

자원공유는 내부적인 연결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경쟁적인 자원이 부족하면 상호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연결을 사용한다. 기업이 스스로 그 역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트너를 통하여 기업의 역량을 제공받아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Rajagopal et al., 2009; Lee et al., 2007; Ahuja, 2000).

공급체인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될수록 공급체인의 탄력성이 향상되고 이는 기업의 사업성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들은 파트너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상호간에 공유하게 된다. 또한 파트너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체인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급체인관리의 글로벌 파트너십 수준이 향상되고 공급체인의 불확실성 수준을 감소시켜 공급체인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김창봉·권승하, 2013; 김창봉, 2010).

3. 공급체인의 대응성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이 국경이 없어짐으로써 기업들은 최첨단의 공급체인 전략의 출현을 맞이하고, 공급체인을 관리하는 전략적 관점은 특히 기업간 경쟁에서 공급체인 간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i et al., 2006; Tan et al., 2002). 따라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업들은 공급체인의 대응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응성은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고객 만족 활동을 통하여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업간 경쟁에 필수적인 요소로 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다.(Gunasekaran et al., 2008; Frohich and Westbrook, 2001; Hoek et al., 2001).

기업들의 효과적인 공급체인 구축은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 우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급체인 파트너로부터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 개발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재고 수준을 감소시키고 원가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공급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조달 부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기업의 제품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져 낭비를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하여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에 파트너 기업을 초기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속하게 제품을 개선 및 변화시킬 수 있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Qrunfleh and Tarafdar, 2013; Malhotra and Mackelprang, 2012).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문처리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제품에 대한 반품율이 감소하여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고객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다. 기업이 공급체인 대응성을 향상시키면 재고관리 비용, 구매비용, 간접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오고, 업무처리 및 판매계획수립 기간, 리드타임 등을 단축시킬 수 있다(Qrunfleh and Tarafdar, 2013; Thatte et al., 2013; Wong et al., 2005).

4. 기업의 사업성과

기업의 사업성과는 기업이 시장지향성과 금융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공급체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공급체인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체인의 대응성, 정보교환, 글로벌 파트너십, 기업 간 활동의 통합 등 효과적인 수단을 고려한다. 기업이 공급체인 활동 역량에 우위를 확보하면 기업의 시장과 금융 성과를 잠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Qrunfleh and Tarafdar, 2013; Lao et al., 2010).

기업의 사업성과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로서 공급체인의 낭비감소,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급체인 구성원들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자원 낭비의 감소, 제품 불량률의 감소 등 공급체인의 낭비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재고회전을 향상, 기업의 유연성 향상, 재고 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Kim and Ronto, 2010; Rajagopal et a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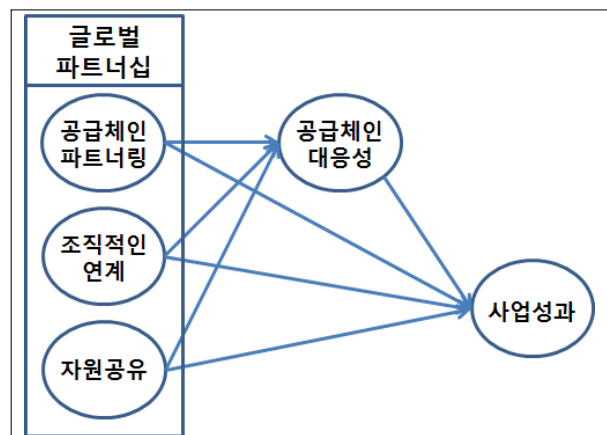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의 모형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 등의 요인들과 공급체인 대응성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사업성과 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인 측정 항목으로 공급체인 파트너링 요인에 파트너와 상호 의존성 증가, 공급자와 정보, 기술 등의 공유 증가, 공급자 집중 증가로 조달 오류 감소 등 3가지 아이TEM을 포함하였고, 조직적인 연계 요인의 구체적인 측정 항목으로 공급체인 파트너와 성과 공유, 파트너와 공동으로 성과 측정, 공급체인 파트너와 조직적인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 등의 3가지 아이TEM을 포함하였다. 자원공유 요인의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 파트너와 공동으로 공급체인 문제 해결, 공급체인 파트너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 등의 3가지 아이TEM을 포함하였고, 공급체인 대응성 요인의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다수의 특징을 가진 제품 생산, 신속한 제품 개선 및 변화, 고객 주문 충족,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 대응 등의 4가지 아이TEM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의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공급체인 낭비감소, 공급체인 효율성 향상, 공급체인 전체 비용 절감 등 3가지 아이TEM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측정 이전에 개념적 연구모형에

서 정의한 변수를 실제 측정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며 본 논문에서 수행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사업성과의 조작적 정의를 요약하면 <표 1>와 같다.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성 개념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공급체인 파트너링	•기업이 공급자 또는 고객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기업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것
	조직적인 연계	•기업 내부의 부처간에 연계와 기업 외부적으로 공식적인 연계를 구축
	자원공유	•내부적인 연결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접근
매개 변수	공급체인 대응성	•기업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종속 변수	사업성과	•공급체인의 낭비 감소를 통한 효율성 향상

3.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사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2> 연구의 가설설정

구분	연구의 가설
가설-1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은 공급체인 대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글로벌 파트너십의 조직적인 연계는 공급체인 대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글로벌 파트너십의 자원공유는 공급체인 대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글로벌 파트너십의 조직적인 연계는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글로벌 파트너십의 자원공유는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공급체인 대응성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Rajagopal et al. (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고, Rajagopal et al. (2009), Sezen(2008), Lee et al.(2007), Wong(2002)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공급체인 글로벌 파트너십과 대응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1, 가설-2, 가설-3을 설정하였다. 또

한 Qrunfleh and Tarafdar(2013), Thatte et al.(2013), Rajagopal et al. (2009)의 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과 공급체인 대응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4, 가설-5, 가설-6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Kim and Ronto(2010), Gunasekaran et al.(2008), Lee et al.(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급체인의 대응성과 기업의 사업성과에 대한 가설-7을 설정하였다.

4. 연구조사방법

본 논문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등의 요인들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Pilot study와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을 작성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2013년 9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약2개월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총 600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28.83%에 해당되는 17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부적절하거나 오류가 있는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83%에 해당되는167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자료 분석은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사업성과 요인에 포함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사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d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검증은 유의수준은 95%에서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였으며 AMOS 16.0과 SPS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IV. 가설의 검증결과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기초통계 분석결과는 <표 3>, <표 4>과 같다. 먼저 기업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167부의 설문 조사

중에서 전기·전자 제조업이 125부(74.9%)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 3> 기초통계분석결과 1

구분		빈도수	백분율(%)
기업형태	음·식료 제조업	13	7.8
	전기·전자 제조업	125	74.9
	건설업	1	0.6
	운송업	1	0.6
	섬유 및 의류업	1	0.6
	제약 및 화학 제품	9	5.4
	기타	17	10.2
합 계		167	100
외국시장 진출기간	2년 이하	10	41.9
	3~10년	58	34.7
	11~20년	36	21.6
	21~30년	3	1.8
	31~40년	0	0
합 계		167	100
수출액 비중	5% 이하	63	37.7
	6~15%	33	19.8
	16~30%	43	25.7
	31~50%	20	12.0
	51~70%	6	3.6
	71~80%	2	1.2
합 계		167	100

종업원 수의 분포를 보면 전체 167부의 설문조사 중에서 100명 이하가 99부(59.3%)로 대부분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101~500명이 54부(32.3%)를 차지하여 500명 이하가 153부(91.6%)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 4> 기초통계분석결과 2

구분		빈도수	백분율(%)
종업원 수	100명 이하	99	59.3
	101~500명	54	32.3
	501~1000명	11	6.6
	1001~3000명	3	1.8
	3001~5000명	0	0
	5001~10000명	0	0
	10001명 이상	0	0
합 계		167	100
해외사업 진출국가 수	1개국 이하	46	27.5
	2~5개국 이하	85	50.9
	6~10개국 이하	28	16.8
	11~20개국 이하	7	4.2
	21~30개국 이하	1	0.6
합 계		167	100
파트너 기업 수	1개 이하	35	21.0
	2~5개 이하	58	34.7
	6~10개 이하	44	26.3
	11~20개 이하	25	15.0
	21~30개 이하	4	2.4
	31~40개 이하	1	0.6
합 계		167	100

외국시장 진출기간은 3~10년이 58부(34.7%)의 분포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11~20년이 36부(21.6%)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해외사업 진출 국가 수는 2~5개국 이하가 85부(50.9%)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개 국가가 46부(27.5%)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수출액 비중은 5% 이하가 63부(37.7%), 6~15%가 33부(19.8%), 16~30%가 43부(25.7%), 31~50%가 20부(12.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파트너 기업의 수는 1개 이하가 35부(21.0%), 2~5개 이하는 58부(34.7%), 6~10개 이하는 44부(26.3%), 11~20개 이하는 25부(15.0%)의 분포를 차지하였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사업성공에 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5> 연구 개념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변수명	공급체인 대응성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
[A1] 다수의 특징을 가진 제품 생산	0.858	0.275	0.202	0.160
[A2] 신속한 제품 개선 및 변화	0.812	0.238	0.253	0.294
[A3] 고객 주문 충족	0.807	0.309	0.226	0.219
[A4]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 대응	0.788	0.143	0.308	0.319
[A5] 파트너와 상호 의존성 증가	0.272	0.814	0.301	0.233
[A6] 공급자와 정보, 기술 등의 공유 증가	0.294	0.783	0.290	0.290
[A7] 공급자 집중 증가로 조달 오류 감소	0.274	0.632	0.332	0.409
[A8] 공급체인 파트너와 성과 공유	0.246	0.275	0.833	0.260
[A9] 고파트너와 공동으로 성과 측정	0.308	0.308	0.782	0.270
[A10] 공급체인 파트너와 조직적인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	0.412	0.446	0.614	0.163
[A11]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	0.304	0.479	0.185	0.709
[A12] 파트너와 공동으로 공급체인 문제 해결	0.301	0.167	0.467	0.703
[A13] 공급체인 파트너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	0.356	0.397	0.223	0.696
eigenvalue	3.538	2.708	2.522	2.216
% of variance	27.218	20.827	19.399	17.047
cumulative %	27.218	48.045	67.444	84.492
cronbach's alpha(α)	0.940	0.904	0.903	0.882

신뢰계수 값의 범위는 0과 1사이로 0.8~1.0의 경우는 매우 강한 관련성을 의미하고, 0.4~0.7의 경우는 상당한 관련성임을 의미한다. 또한 0.2~0.4의 경우는 약간의 관련성, 0.2~0.0의 경우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된다(송지준,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공급체인 대응성 요인의 신뢰는 cronbach's alpha=0.940, 공급체인 파트너링은 cronbach's alpha=0.904, 조직적인 연계 요인은 cronbach's alpha=0.903, 자원공유 요인은 cronbach's alpha=0.882로 나타나 신뢰계수가 모두 0.8~1.0 사이에 있어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업성과 요인의 cronbach's alpha=0.885으로 신뢰계수 값의 범위가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전에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표 6>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기업의 사업성과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체인 대응성 요인은 4개의 변수로 측정되었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기업의 사업성과는 각각 3개의 관측변수에 의해 측정하여 관련된 잠재변수 및 측정오차에 대해 회귀되어지는 5개의 요인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는 측정모델이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다. 먼저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chi^2=216.412$ (df=94, p=.000), 잔차평균자승이중근은 0.040으로 나타났다. 공분산잔차의 평균을 표준화한 SRMR은 0.08이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0.041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기초적합지수(GFI)는 0.857, 표준적합지수(NFI)는 0.919, 상대적합지수(RFI)는 0.896, 증분적합지수(IFI)는 0.952, 터커-루이스지수(TLI)는 0.938, 비교적합지수(CFI)는 0.952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는 보편적으로 1에 근접한 값이 권장되는 수용수준이며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0.9에 근접하게 나타남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 관측변수들의 표준화 요인값인 C.R값은 2.301(p<0.01)을 초과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의 표준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개별 관측변수의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중상관자승(SMC)은 0.2이상, 평균분산추출(AVE)은 모두 0.5이상으로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분석

요인	측정 변수	표준화 추정계수	표준 오차	C.R.	SMC	요인 부하량	AVE
공급체인 파트너링	A5	1.000			0.782	0.884	0.765
	A6	1.020	0.061	16.846	0.815	0.903	
	A7	0.943	0.065	14.489	0.699	0.836	
조직적인 연계	A8	1.000			0.794	0.891	0.764
	A9	1.015	0.060	16.902	0.825	0.908	
	A10	0.865	0.062	13.992	0.674	0.821	
자원공유	A11	1.000			0.786	0.887	0.720
	A12	0.914	0.070	13.002	0.631	0.794	
	A13	1.045	0.069	15.073	0.744	0.862	
공급체인 대응성	A1	1.000			0.784	0.886	0.798
	A2	0.957	0.053	18.193	0.850	0.922	
	A3	0.902	0.055	16.268	0.769	0.877	
	A4	0.966	0.058	16.732	0.789	0.888	
사업성과	B1	1.000			0.787	0.887	0.720
	B2	0.928	0.064	14.413	0.718	0.847	
	B3	0.956	0.072	13.321	0.656	0.810	
모델 적합도	$\chi^2=216.412$ (df=94, p=.000), RMR=0.040(SRMR=0.041), GFI=0.857, NFI=0.919, RFI=0.896, IFI=0.952, TLI=0.938, CFI=0.952, RMSEA=0.089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7>, <표 8>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chi^2=216.412$ (df=94, p=.000), 잔차평균자승이중근은 0.040으로 나타났다. 공분산잔차의 평균을 표준화한 SRMR은 0.08이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0.041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모형에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표)은 각각 정(+)의 방향과 부(-)의 방향으로 p<.05 수준에서 적합도 지수중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기초적합지수(GFI)는 0.857, 표준적합지수(NFI)는 0.919, 증분적합지수(IFI)는 0.952, 터커-루이스지수(TLI)는 0.938, 비교적합지수(CFI)는 0.952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간의 인과관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 모델의 적합도 분석

Classification	Statistics	Criteria	Test
χ^2	Chi-square 216.412 (df=94, p=0.000)	p>0.05	Rejected
Q	χ^2/df 2.302	≤ 3.0	Accepted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041	≤ 0.08	Accepted
GFI	goodness-of-fit index 0.857	≥ 0.90	Rejected
NFI	normed fit index 0.919	≥ 0.90	Accepted
RFI	relative fit index 0.896	≥ 0.90	Rejected
IFI	incremental fit index 0.952	≥ 0.90	Accepted
TLI	Turker-Lewis index 0.938	≥ 0.90	Accepted
CFI	comparative fit index 0.952	≥ 0.90	Accepted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89	≤ 0.08	Rejected

첫째, 기업의 공급체인 파트너링이 강화되어도 공급체인 대응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체인 파트너링의 공급체인 대응성에 대한 경로계수는 0.035이고, 표준오차는 0.168,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0.209로 나타났다. 기업의 공급체인 파트너링이 활발하게 잘 되면 기업의 사업성과가 강화되었다. 공급체인 파트너링의 사업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550이고, 표준오차는 0.139,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3.9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고,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둘째, 글로벌 파트너십의 조직적인 연계가 강화될수록 공급체인 대응성이 향상되었다. 조직적인 연계의 공급체인 대응성에 대한 경로계수는 0.328이고, 표준오차는 0.121,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2.704로 나타났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조직적인 연계가 개선될수록 기업의 사업성과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적인 연계의 사업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033이고, 표준오차는 0.101,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0.33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고,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셋째, 글로벌 파트너십의 자원공유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공급체인의 대응성이 향상되었다. 자원공유의 공급체인 대응성에 대한 경로계수는 0.129이고, 표준오차는 0.137,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0.940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자원공유가 향상될수록 기업의 사업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공유의 사업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129이고, 표준오차는 0.137,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0.94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넷째, 공급체인의 대응성이 향상될수록 기업의 사업성과가 개선되었다. 공급체인 대응성의 사업성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0.170이고, 표준오차는 0.080, t-통계량에 해당되는 임계치(C.R.)는 2.120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Estimate)	표준 오차 (S.E.)	t값 (C.R.)	P값
H1	공급체인 파트너링 → 공급체인 대응성	0.035	0.168	0.209	0.834
H2	조직적인 연계 → 공급체인 대응성	0.328	0.121	2.704	0.007***
H3	자원공유 → 공급체인 대응성	0.516	0.160	3.216	0.001***
H4	공급체인 파트너링 → 사업성과	0.550	0.139	3.950	0.000***
H5	조직적인 연계 → 사업성과	0.033	0.101	0.331	0.740
H6	자원공유 → 사업성과	0.129	0.137	0.940	0.347
H7	공급체인 대응성 → 사업성과	0.170	0.080	2.120	0.034**

4. 연구결과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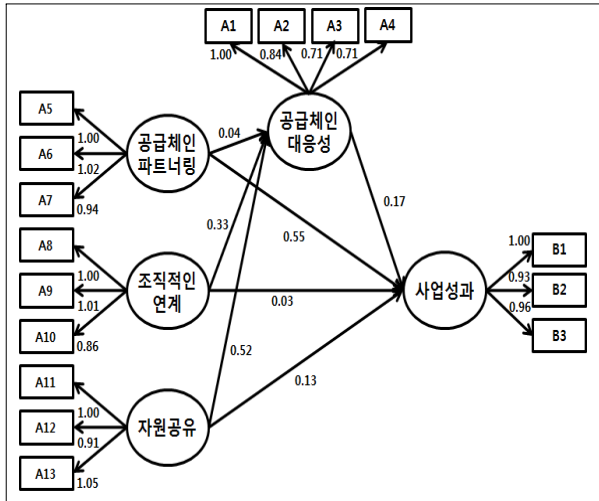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과 공급체인 파트너링은 공급체인 대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의 사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Qrunfleh and Tarafdar(2013)의 연구와 다르게 파트너들과 정보, 기술 등의 공유가 증가하면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여 공급체인의 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체인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수요 시장에 대한 대응성이 약화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에 공급체인의 공급자와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면서 조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감소하여 공급체인의 파트너링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hatte et al.(2013), Rajagopal et al. (2009)의 연구에서 기업간 조직적인 연계와 자원공유가 강화될수록 공급체인의 통합의 효과로 기업의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과 다르게 글로벌 파트너십의 조직적인 연계와 자원공유는 기업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계와 자원공유가 공급체인 대응성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체인 파트너와 공동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직접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지만 조직적인 연계가 강화되어 공급체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급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트너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원공유가 기업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급체인의 대응성이 향상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사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공급체인의 대응성이 강화될수록 기업의 사업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고객 주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제품을 개선함으로써 공급체인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공급체인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체인의 대응성은 공급체인의 최적화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킨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확장과 제품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글로벌 고객만족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파트너십에서 요구하지 못했던 국제인증 획득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증의 실행을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 구축에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결, 자원공유와 공급체인 대응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공급체인 대응성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급체인 파트너링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급체인의 파트너들과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파트너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공급체인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공급체인

파트너링이 공급체인 대응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급체인의 공급자와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면서 조달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켜 공급체인의 파트너링이 공급체인의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글로벌 파트너십의 세부 요인인 조직적인 연계와 자원공유는 공급체인 대응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급체인 파트너와 공동으로 공급체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적인 연계가 강화되어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주문을 충족시키고, 제품 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급체인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급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트너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급체인의 대응성이 향상된다.

셋째, 공급체인의 대응성이 강화될수록 기업의 사업성과가 향상된다. 이는 기업들이 고객 주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제품을 개선함으로써 공급체인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공급체인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체인의 대응성은 공급체인의 최적화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킨다.

본 논문의 주된 시사점으로 국제인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수출기반의 기업들이 공급체인관리에 대한 일환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국제인증 획득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함으로써 국제인증 획득에 기업의 내부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파트너십의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국제인증의 획득한 기업이 공급체인 파트너링, 조직적인 연계, 자원공유 등의 요인을 도출하여 공급체인의 대응성과 기업의 사업성과에 관계를 고찰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기여도는 국제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체인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적으로는 해외 선진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세부 요인과 공급체인의 대응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업종분야별, 기업규모별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장과 공급체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물류학회지, 제23집 제3호, pp.203~231.
- 김창봉·권승하 (2013), "공급체인관리의 파트너십이 위험 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38집 제1호, pp.91~112.
- 김창봉·정순남 (2011), "공급체인 통합과 친환경 활동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1호, pp.447~466.
- 김창봉 (2010), "식품산업의 Outsourcing 수준, 파트너십 관계, 안전성 및 사업성과의 관계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제13권 제5호, pp.133~152.
- 송지준 (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Ahuja, G. (2000), "The duality of collaboration: inducements and opportunities in the formation of interfirm linka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1, No.3, pp.317~343.
- Boddy, D., Macbeth, D.K., and Wangner, B. (2000), "Implementing collabo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 empirical study of supply chain partnering",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37 No.7, pp.1003~1017.
- Beth, S., Burt, D.N., Copacino, W., Gopal, C., Lee H.L., Lynch R.P., and Morris S. (2003), "Supply chain challenges: building relationship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pp.1~10.
- Bubshait, A.A. (2001), "Partnering: an innovative and effective project organization concept", *Journal of Cost Engineering*, Vol.43 No.4, pp.32~37.
- Caro, L.M. and Garcia. J.A.M. (2009), "Does ISO 9000 certification affect consumer perceptions of the service provider?", *Managing Service Quality*, Vol.19 No.2, pp.140~161.
- De Ruyter, K., Moorman, L., and Lemmink, J. (2001), "Antecedents of commitment and trust in customer-supplier relationships in high technology market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30 No.3, pp.271~286.
- Escanciano, C., Fernandez, E. and Vazquez, C. (2001), "Influence of ISO 9000 certification on the progress of Spanish industry towards TQM",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 Reliability Management*, Vol.18 No.5, pp.481~494.
- Frohlich, M.T. and Westbrook, R. (2001), "Arcs of integration: an international study of supply chain strategie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19, pp.185~200.
- Fynes, B. and Voss, C. (2002), "The moderating effect of buyer-supplier relationships on quality practices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22 No.6, pp.589~613.
- Gunasekaran, A., Lai, K., and Cheng, E. (2008), "Responsive supply chain: a competitive strategy in a networked economy", *Omega*, Vol.36 No.4, pp.549~564.
- Hoek, R.I., Harrison, A., and Christopher, M. (2001), "Measuring agile capabilities in the supply chain",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21 No.1/2, pp.126~148.
- Kim, C.B. and Ronto, S.E. (2010), "Business performance, process innovation and business partnership 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Korean manufacturers", *Journal of Korea Trade*, Vol.14 No.4, pp.61~83.
- Kim, C.B., Jung, J.N. and Ronto, S.E.(2012), "The Impact of Green-Oriented 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ers", *Journal of Korea Trade*, Vol.16 No.4, pp.27~55.
- Lambert, D.M. (2001), "Supply chain management: what does it involve?", *Supply Chain and Logistics Journal*, Vol.4.
- Lee, C.W., Ik-Whan, G.K., and Severance, D. (2007), "Relationship between supply chain performance and degree of linkage among supplier, internal integration, and customer",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2 No.6, pp.444-452.
- Li, S., Ragu-Nathan, B. Ragu-Nathan, T.S., and Rao, S.S. (2006), "The impact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s on competitive advantag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mega*, Vol.34 No.2, pp.107~124.
- Malhotra, M.K. and Mackelprang, A.W. (2012), "Are internal manufacturing and external supply chain flexibilities complementary capabilitie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30 No.3, pp.180~200.
- Marin, L.M. and Ruiz-Olalla, M.C. (2011), "ISO 9000:2000 certification and business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 Reliability Management*, Vol.28 No.6, pp.649~661.
- Padma, P., Ganesh, L.S. and Rajendran, C. (2008), "A study on the ISO 14000 cer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Indian manufacturing firms", *Benchmarking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4 No.1, pp.73~100.

- Qrunfleh, S. and Tarafdar M. (2013), "Lean and agile supply chain strategies and supply chain responsiveness: the role of strategic supplier partnership and postpon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8 No.6, pp.571~582.
- Rajagopal, P. Zailani, S. and Sulaiman, M. (2009),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supply chain partnering with scalable partnering as a moder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Vol.39 No.8, pp.649~668.
- Sezen, B. (2008), "Relative effects of design, integ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on supply chain performance",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3 No.3, pp.233~240.
- Singh, P.J., Power, D. and Chuong, S.C. (2011), "A resource dependence theory perspective of ISO 9000 in managing organiza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29, No.1-2, pp.49~64.
- Singels, J. Ruel, G., and van de Water, H. (2001), "ISO 9000 series Certification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 Reliability Management*, Vol.18 No.1, pp.62~75.
- Tan, K.H. Lyman, S.B. and Wisner, J.D. (2002), "Supply chain management: a strategic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22 No.6, pp.614~631.
- Thatte, A.A., Rao S.S. and Ragu-Nathan, T.S. (2013), "Impact of SCM practices of a firm on supply chain responsiveness and competitive advantage of a firm",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Vol.29 No.2, pp.499~530.
- Whipple, J.M. and Frankel, R.(2000), "Strategic alliance success factors",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36 No.3, pp.21~28.
- Wong, C.Y., Arlbjorn, J.S. and Johansen, J. (2005), "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s in toy supply chain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0 No.5, pp.367~378.
- Wong, A. (2002), "Sustaining company performance through partnering with supplier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 Reliability Management*, Vol.19 No.5, pp.567~580.
- Zaramdini, W. (2007), "An empirical study of the motives and benefits of ISO 9000 certification: the UAE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 Reliability Management*, Vol.24 No.5, pp.472~491.

논문접수일 : 2013. 11. 30. 논문수정일 : 2013. 12. 16. 게재확정일 : 2013. 12. 26.

